

“누구나 집 1만세대 건설, 청년·신혼부부·서민에 공급”

민주 송영길 대표 교섭단체 연설 청년 삶 누르는 잘못된 구조 바꿔 청년 겨냥 ‘신용카드 캐시백’ 내놔 소형모듈원자로 北 공급 방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적극적인 젊은 층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 대표는 이날 ‘청년’이라는 단어를 21번 사용했다. 송 대표가 청년을 강조한 것은 지난 4·7재보선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성난 민심을 다독이고, ‘이준석의 돌풍’에 대한 위기가감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송 대표는 “민주당이 20·30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집값 폭등으로 당달아 오르는 보증금과 월세에 청년세대 좌절이 심각하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 접한 고시원 청년의 고달픈 일상,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며 청년문제를 총괄할 청년특임장관 신설도 제안했다. 이어 “과편·단기적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종합 지원은 물론 청년과 정부가 소통할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제시한 ‘패키지 추경’ 가운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역시 각종 지출로 부담이 큰 청년 세대를 겨냥한 아이디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2분기 대비 3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클 경우, 증가분의 1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백신 보급 확대에 맞춰 내수 소비를 자극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대신 현금 환급액에는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추경 반영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추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1만 세대의 ‘누구나 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복합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SMR이 중동 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상당 기간 수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청년 특임장관 제안과 함께 강력한 주택 공급대책 조기 실현, 코로나 백신 자체 개발 지원, 검찰개혁, 미디어 환경 혁신을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해서 저는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다.

반도체 전경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원 효과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준석 대표 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 보수로 발전하길 바란다

”며 “(이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밖에 언론개혁에 대해 “미디어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언론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소수정당 한계 탓...광주출신 강은미·권은희 법안 발의 못해

10명 공동 발의 기준 못채워 2개 정당 이상 참여 의무화

광주 출신 정의당 강은미(비례)·국민의당 권은희(비례) 국회의원이 소수정당의 한계 탓에 법안 발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소 10명의 공동발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법안을 낼 수 있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무관심 속에서 ‘법안 발의’라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야당 의원 2명이 시너지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발의 의원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같은 당인 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국회의원과 민주당 조오섭 의원 등 6명만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해 하청업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은희 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6월 9일)은 국민의당 최연숙·국민의힘

양금희·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동의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월 9일)은 최연숙·양금희·홍준표 의원만이 함께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26일 권 의원이 발의·찬성 서명을 신청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당 이태규·최연숙 의원 등 2명만 동의해 해를 넘기고도 발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 과정에 ‘2개 정당 이상 국회의원 동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어야 소수 정당 국회의원들도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준석 “웬 당명교체”...안철수 “입장 바꿔 생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양당 통합 논의와 관련, “버스에 시동을 걸기 전 합당으로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만들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버스에 비유해 공식 경선 절차를 시작하기 전 합당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가 당 경선 시작 시점으로 제시한 마지막 노선은 8월 중·하순이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안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당 측은 “당명 교체” 주장에 대해서는 “주호영 대표 대행의 협상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어떤 연유로 새로운 제안이 나오게 됐는지 파악해보

겠다”며 “금명간 사무총장을 임명하면 실무협상 책임자를 정해 정확한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회동 후 당명 교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그건 (당명 변경은)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실무선에서 서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합당 과정에서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지권에서 지분이라는 게 아수편하다”며 “우리로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지분권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 공정하게 합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빨리 링 올라오라” 野 잠룡들, 윤석열 압박

윤 6말7초 출사표 예고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말~ 7월초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이 보다 빠른 결단을 촉구 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 측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입장을 빨리 밝히는 게 대선후보로 주목받는 사람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 결단을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향후 일정 공개와 관련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며 “(윤 전 총장의 행보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야당 현직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모호하고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이 내세우는 ‘공정’에 대해서도 “20세기의 가치고, 21세기에서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 새로운 게 아니다”며 “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비전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탈당 권유’ 해결 기미 못찾는 민주당

야 전수조사 비협조엔 속웃음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비위 의혹 의원들에 대한 탈당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이들에게 ‘선당후사’를 호소하며 탈당계를 내지 않고 있는 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탈당계를 내지 않은 분도 있어 조금 더 대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걸 정리한 다음에 (탈당계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당 권고 이후 8일이 지났지만 권고 대상 12명 중 절반 가량만 탈당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 일부는 여전히 ‘억울하다’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전수조

사를 의뢰하고서도 정작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집중 비판을 이어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며 “국회의원이 먼저 투기 의혹 검증을 받아야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의 투기를 엄단하고 감사·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자체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의 이런 전수조사 비협조 움직임이 내심 반갑다는 반응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상가 매매 (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8천 (용 4억가)

2) 보증금 4천만, 월 300만(임대완료)

3) 평수 140평(전용 100평)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사무실, 바, 유희룸,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업무가능,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토지 (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1) 100평 → 8천
2) 150평 → 1억1천

총 1,778평 → 9억 (용 4억가능)

10필지 전원주택
선착순 접수중

062-382-5500